

신이식 8개월 후에 발생한 거대세포바이러스 장염에 의한 장천공 1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과학교실, 외과학교실¹

고정민, 한혜원, 김대연¹, 한덕중¹, 박영서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는 신이식 후에 가장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신이식후 유병률과 사망률, 이식신 거부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자들은 신이식 8개월에 지발성으로 발생한 CMV 장염에 의한 장천공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환아는 11세 남아로, 역류성 신병증으로 2001년 11월 비혈연간 생체 신이식술을 받았으며, 이식전 CMV IgG 항체 양성으로 CMV 예방요법을 받지 않았고, 이식후 FK506, azathioprine(AZT), prednisolone(PD)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았다. 2002년 5월 혈청 크레아티닌치의 상승으로 시행한 이식신 생검상 경미한 만성 거부반응 소견을 보여 AZT를 mycophenolate mofetil(MMF)로 교체 투여하였고,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여 투여 2주 후에 다시 AZT로 교체하였으나, 설사와 복통이 지속되고 발열 동반되어 입원하였고 범혈구감소증과 범발성혈관내용고증 소견을 보여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환아의 CMV-PCR은 양성이었으나 바이러스 부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CMV pp65 antigenemia 검사는 심한 백혈구 감소로 시행하지 못하고 관찰하던 중, 제 4병일에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복부 강직보여 응급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고 회장 부분 절제술 및 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제거된 조직에서 세포내 바이러스 봉입체가 확인되어 CMV 장염에 의한 장천공으로 진단하였고, gancyclovir를 6주간 정맥 주사하며 범혈구 감소증은 호전되고 발열은 소실되었다. 6주간의 치료 후 CMV pp65 antigenemia 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으며 발병전의 신기능으로 회복되었다.